

부 고

마리아 티아틸데 MARIA THIATILDE 수녀 ND 4268

클라라 펠링 Klara FÖLLING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24년 10월 26일 프레켄호르스트
서 원: 1951년 8월 15일 알렌
사 망: 2026년 5월 4일 코스펠드, 안네탄 수녀원
장 례: 2026년 5월 12일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클라라 펠링은 네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으며, 부모인 하인리히 펠링과 그의 아내 게르트루드(본명 베어만)의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마친 후, 클라라는 알렌으로 이사하여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2년제 상업 기숙생으로 입학했다. 클라라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수도 생활의 의미를 발견했으며, 그곳에서 보낸 아름다운 시간들 중 많은 순간에 성 미카엘이 제 생각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 후에는 프레켄호르스트의 한 농장에서 의무봉사 연수를 마쳤다. 그런 다음 바렌도르프 시립 저축은행에서 견습 생활을 시작했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1949년 2월 1일 물하우젠에서 우리 수도회에 입회할 때까지 그곳에서 6년 반 동안 근무했다. 1949년 8월 15일 착복하면서 마리아 티아틸데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첫 서원 후에는 프레텐, 뷔렌, 알렌, 베를린, 뮌스터, 코스펠드 등 여러 곳에서 생활했으며, 종종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 또한 1951년 당시 뮌스터 주교로부터 교육 임무를 위임받아 학교와 청소년 단체에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쏟았다. 수녀는 자신이 설립한 프레텐 음악학교의 초창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도 만들어진 연주를 즐기곤 했다. 나중에는 이미 안네탄 수녀원에서 지내던 티아틸데 수녀는 뜰에서 음악을 연주하곤 했는데, 이는 모든 수녀들과 직원들에게 큰 기쁨이었다. 공개 공연도 하는 음악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개별 구성원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과 조언을 통해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수녀는 예리한 지성을 지녔으며 세계 정세와 교회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대화할 때 친근하면서도 분명하고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수녀의 관심은 우리 국제 수도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녀는 전 세계적인 결정이든 지역적인 결정이든 모든 결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했다. 수년 동안 가족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으며 고향에서 온 방문객, 친척, 친구들의 방문을 무척 기뻐했다.

수녀는 문서 보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를 위해 1990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증을 취득했다. 우리 관구의 문서실을 설립하고, 관구 내외의 개별 지부 기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수녀는 고대 귀족 가문에 관한 논문으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정치계 소식은 어때요?”—수녀가 자주 던지던 질문이었다.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누군가 일간지나 교회 소식지를 읽어줄 때면 기뻐하곤 했다. 총본원에서 온 편지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였다. 티아틸데 수녀는 주의 깊은 경청자였다.

수녀는 “신선한 공기”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혼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차로 이동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올해 4월 11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경축, 즉 수도 서원 75주년을 축하했다. 하느님과 공동체 안에서 서원을 다시 한 번 갱신하기를 원했다. 그 후 기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침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다. 숙련된 간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5월 4일 자정 직전, 오랜 수도 생활이 막을 내렸다. “한밤중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우리 티아틸데 수녀에게 있어, 이는 하느님의 안식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